

- **주요 뉴스:**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록적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
 - 중국, 미국의 신장 지역 생산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 강력 반발
 - 러 외무장관,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유럽의 군사위기를 초래
 - 일본, 베이징 동계 올림픽 ‘외교 보이콧’에 사실상 동참
 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 증시 휴장, 유럽 증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혼조세
유럽주가 약보합[-0.10%], 달러화 휴장, 獨 금리 보합[-]
 - **주가:** 미국 휴장
유로 Stoxx600지수는 성탄절 분위기로 큰 변동 없는 모습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 휴장
유로화 가치는 -0.07%, 엔화 가치는 0.01%
 - **금리:** 미국 휴장
독일은 보합세. 성탄절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7.3원, +0.1원) 0.01% 상승, 한국 CDS 하락

		12/24일	12/23일	전일대비			12/23일	12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휴장	4,725.8	-	국채 금리 10y	미국	휴장	1.49%	-
	유럽	482.51	483.01	-0.10%		독일	-0.25%	-0.25%	-
	중국	3,618.1	3,643.3	-0.69%	CDS 5y	한국	20	21bp	-1bp
	일본	28,783	28,798	-0.05%		중국	41	42bp	-1
	한국	3,012.4	2,998.2	0.48%	위험 지표	EMBI+	-	393.93	-
환율	달러지수	휴장	96.05	-		VIX	휴장	17.96	-
	유로화	1.1319	1.1327	-0.07%		WTI유	휴장	73.79	-
	엔화	114.38	114.39	0.01%	원자재	구리	휴장	439.3	-
	위안화	6.3677	6.3702	0.04%		금	1,817.3	1,808.8	0.47%
	원화	1,186.5	1,187.8	0.1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록적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

- 2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.6만명으로 2주 전 대비 50% 이상 증가. 영국은 12만명에 육박했고, 프랑스·이탈리아·스페인·호주도 역대 최대 기록
- 英 보건안전청장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위험이라며 부스터샷을 완료하라고 강조
- 佛은 부스터샷 간격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12~17세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부스터샷도 권고
- 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행사 및 이벤트 금지(~1.31일), 백신 패스 유효기간 단축(9개월→6개월) 등 방역조치를 강화
- 日 후생노동성은 24일 머크社의 코로나19 치료제 ‘몰누피라비르’의 특례사용을 승인하고 다음주부터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
- 오미크론 첫 발견지인 남아공은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면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격리도 필요 없다며 방역규제를 완화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중국, 미국의 신장 지역 생산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 강력 반발

- 바이든 미 대통령이 23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‘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’에 서명한데 대해 中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개입했다며 강하게 반발
- 상무부는 신장 강제노동은 순전한 날조이고 사실무근이라며, 중국은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

■ 러시아 외무장관,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유럽의 군사위기를 초래

-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으로 군대를 이동배치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강화하고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주장

-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은 모든 관련국에 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, 미국이 대결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

■ 일본, 베이징 동계 올림픽 '외교 보이콧'에 사실상 동참

-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 파견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언급. 이는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기시다 총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'외교 보이콧'에 사실상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
-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본축으로 삼는 일본이 보이콧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, 직접적으로 '외교 보이콧'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

■ 우크라이나 경우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공급 20% 가까이 축소

-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, 러시아가 폴란드를 경유하여 독일로 공급되는 가스관 가동을 나흘째 중단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도 20% 가까이 축소
- 가스프롬社は 유럽 구매자들의 신청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, EU 내에서는 러시아-독일 직결 가스관 '노르트 스트림 2'에 대한 독일과 EU 당국의 조속한 가동 승인을 압박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
- 한편 Bloomberg 등에 따르면 유럽의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 미국 LNG 운반선 10척 이상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

■ 터키, 러시아-우크라이나 분쟁시 우크라이나 지원 시사

- 외무장관은 터키와 러시아 간 포괄적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밀접한 관계와 나토의 방침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2/24 현지시각 기준)

- 일본 1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(전년비): 0.5%, 10월(0.1%), 예상치(0.4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